

## 2022년 2월 26일 “예수님의 비유(30) 열 처녀 이야기”(마 25:1~13)

열 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시사합니다. 누가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 [1]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신부의 들러리들(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체되자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이 있었지만 다른 다섯 처녀는 부족하여 어리석다고 평가됩니다. 들러리 준비를 다 마치고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 [2] 등불의 의미

본문의 신랑에 비유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 일깨워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처럼 신을 찾고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등불의 목적은 신랑이 올 때 알아보고 잔치 자리로 가는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예수님 말씀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 6:22-23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몸의 행실)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과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성하면 몸의 행실이 밝아집니다(인격과 행실의 변화). 반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지배받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정확하게 붙들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옷도 차려 입고,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꺼뜨립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을 수 없었고 혼인잔치에 가는 길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 [3] 어떻게 준비할까?

이와 같이 성도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했지만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옛 습관과 옛 성품과 옛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 어려움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 혼동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등 집중과 인내의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때 옛 성품과 기준으로 돌아가면 한 걸음의 정진이 어려워집니다.

본문 12-13 절,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의 묵상/기도와 일상에서 인도받는 훈련으로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를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고 복된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본문을 볼 때 내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해 보세요.
2. 나는 언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인식합니까? 그 때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